인식 너머 보이지 않는 예술

October, 2016 | 에디터 계안나

지금 세계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 애니시 커푸어Anish Kapoor는 눈에 보이는 진실을 의심하라고 권한다. 물질과 비물질 사이를 오가며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초연하게 말하는 그의 숭고한 작품. 4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에서 그를 만났다.

인식 너머 보이지 않는 예술

묵직한 철문을 열자 엿가락처럼 휜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품이 나타난다. 2.5m에 달하는 대형 작품. 불특정한 각도로 휘면서 주변 풍경을 왜곡된 모습으로 비추는 여러 개의 조각품은 마치 고대의 기념비처럼 놓여 있어 엄중한 분위기를 풍긴다. 10월 30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애니시 커푸어 개인전 〈Gathering Clouds〉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그가 천착하는 비정형 시리즈 중 신작 '트위스트' 시리즈를 소개했는데, 물체에 적용한 힘이 절제된 형태의 움직임으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표현한 작품이다. 건축에서 급진적 운동성과 기울어진 평면을 활용한 바로크의 건축가들처럼 말이다.

인도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하는 애니시 커푸어는 다양한 모순의 균형이 삶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모순과 상반된 것, 설명 불가능한 균형을 작품에 담고자 했다. 그의 작품을 숭고sublime의 개념과 더불어 불교와 힌두교 등 동양철학과 연결해 해석하는 이유다. 그는 늘 작품 앞에서 성직자같이 화답했다. "빈 공간이 아니다. 그것들은 암흑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모두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둠처럼."

아름답지만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울 시리즈, "피가 생명을 주는 의례의 액체"라고 말하며 붉은색을 키워드로 했던 '리바이던Leviathan', '나의 붉은 조국My Red Homeland' 등과 같은 신비롭고 웅장한 작품. 모양, 재질, 형태가 다른 셀 수 없이 많은 작품을 보여주지만, 관통하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느끼는 전부가 아니고, 느끼는 것이 보이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애니시 커푸어의 작품에서는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불안해진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물질이 생동한다. 세상을 삼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작품. 그런 기묘하고도 유기적인 입체가 주는 저릿저릿한 경험이 갤러리에 가득 차 있다.

> 모든 물질적 사물은
> 비물적 상태를 지니고 있다.
> 몸과 정신이 혼합한 상태.
> 나는 그런 상태를 예술에서 찾고자 한다.

전시의 주제와 의도를 설명한다면. 비물성, 비정형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오브제를 왜곡해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성 자체의 변화까지 고려한다. 특히 2.5m에 달하는 대형 작품 세 점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얼마나 다층적인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정형을 강조한 작품이다. 나는 작업할 때 복잡한 트릭을 두지 않는다. 간단한 동작만으로 각자 다양한 생각을 품게 하는 질문을 담기를 원한다.

그 간결함을 위해 밀도 깊게 고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색인 '벤타블랙'의 독점권을 가지고 작업한 점도 그렇고. 물론 그렇다. 영국 나노 기술 기업과 함께 개발한 벤타블랙은 정말 까맣다. 마치 블랙홀처럼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혼란을 야기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곧이를 이용한 대형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작품 또한 겉으로는 간결해 보이지만 90도로 뒤틀리면서 휘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오목한 형태의 평면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더욱 왜곡되어 보이는 풍경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해준다.

비정형, 비물질, 초월적인 개념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조각은 형태를 띠는 오브제지만, 정신을 포함한다. 찰흙 자체는 물질이지만 그것이 도자기가 되면 빈 공간을 품은 형태가 되지 않나. 물질과 비물질, 정형과 비정형이 공존하는 시간. 예술은 비현실적인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두운 내부,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 자체가 나에게는 무척 중요한 테마다. 에디터 계안나 | 포토그래퍼 이기태

1 군집된 구름 시리즈. 벤타블랙은 아니지만 특유의 빠져들 것 같은 검은 컬러로 기이한 느낌을 준다. **2** 비정형 시리즈. **왼쪽 페이지** 10월 30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애니시 커푸어의 개인전 중 신작 'Non-Object(Triangle Twist)' 작품 앞에 선 그. 더욱 고요하고 차분해진 그의 눈빛은 인식 너머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있다.